

## 최근의 소득 양극화 추이 분석

- 1980~90년대 이후 많은 선진국에서 양극화가 확대되었으며,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된 후 최근 둔화

- 글로벌화, 기술변화, 고령화·저출산 등과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소득계층간, 기업간, 산업간,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성장의 분배효과(trickle down effects)가 사라지면서 양극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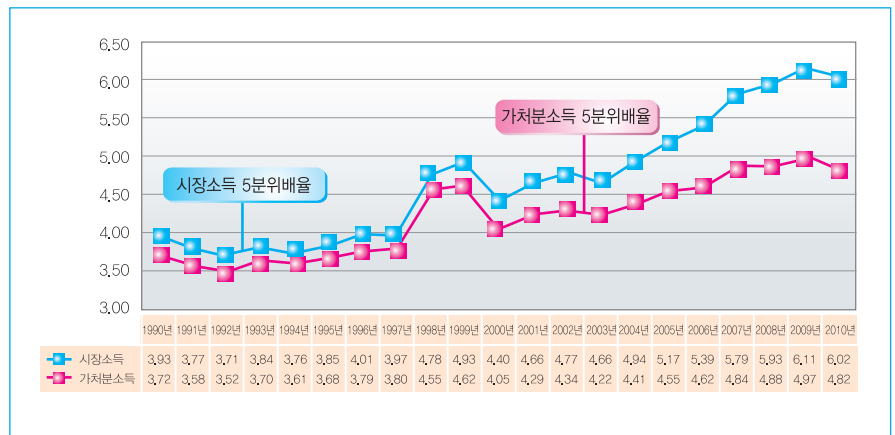
### 1. 한국의 소득 양극화

#### 가. 5분위배율

□ 2010년 소득분배지표(전국 가처분소득 기준) 격차는 2009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

- 2011년 1/4분기 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
  - 1분위(2.4%)와 5분위(2.1%) 증가폭은 2~4분위의 증가폭(4.0~6.4%)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소비지출은 모든 분위에서 증가
  - 1분위(6.8%)와 2분위(11.2%)의 소비지출 증가폭이 3~5분위 증가폭(0.6~4.3%)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1] 한국의 5분위배율(2인 이상, 도시가구)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나. 중산층 비중

□ 우리나라의 소득계층구조는 2007년까지 빈곤층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2010년 들어 빈곤층의 비중이 감소

○ 반면, 중간층의 비중은 2007년까지 감소하다가 2008년 이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

〈표 1〉 한국의 소득계층구조 변화 추이(전가구, 2인 이상)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빈곤층	12.53	13.13	13.76	13.70	14.21	14.15	14.12	13.83
중하층	13.70	13.11	13.00	13.47	12.64	12.01	12.75	12.47
중간층	54.51	53.84	53.14	51.87	51.59	52.39	52.22	53.07
상류층	19.26	19.92	20.11	20.96	21.56	21.45	20.91	20.63

주: 1) 농어가가구 제외

2) 빈곤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중하층은 50~70%, 중간층은 70~150%, 상류층은 150% 이상으로 구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그러나 노인가구를 포함한 1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에는 빈곤층의 비중이 증가

- 이는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며, 중간층의 비중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010년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

※ 2000년대 중반 한국 노인인구의 상대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인 13.3%의 3.4 배 이상임

〈표 2〉 한국의 소득계층구조 변화 추이(전가구, 1인가구 포함)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빈곤층	16.28	17.19	17.76	18.42	18.30
중하층	12.56	11.97	11.66	11.97	12.01
중간층	48.36	47.56	47.11	46.08	47.60
상류층	22.79	23.29	23.47	23.53	22.09

주: 1) 농어가가구 제외

2) 빈곤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중하층은 50~70%, 중간층은 70~150%, 상류층은 150% 이상으로 구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다. 지니계수

□ 지니계수는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급증하였으나 최근 들어 점차 증가세 주춤

○ 1990년대 초반에는 0.25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9년 0.288로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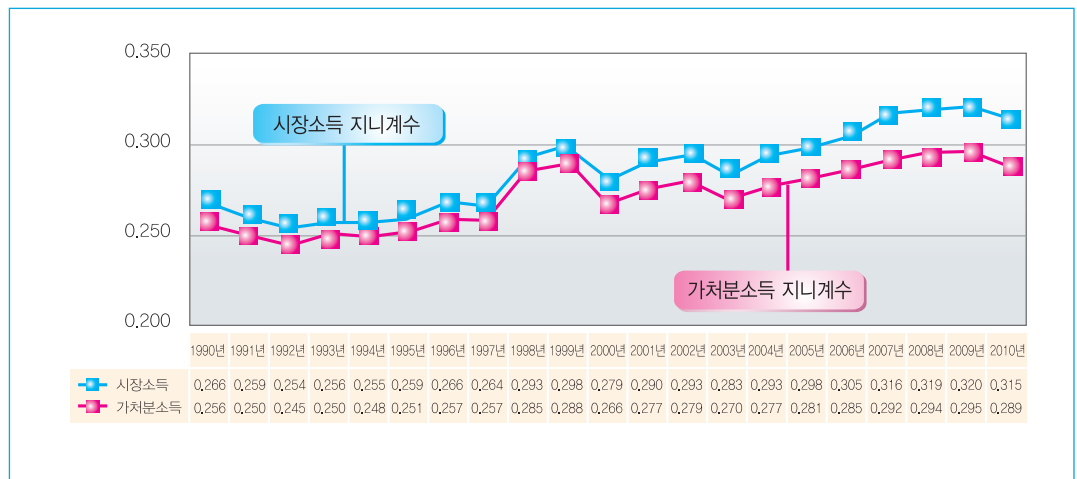
- 외환위기 전후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대규모 실업 등으로 인해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지니계수 상승

○ 2007~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0.294, 2009년 0.295로 소득불평도가 심화되었으나 2010년 0.289로 낮아져 다소 완화

□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차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7년 이후 0.026 수준의 개선효과 유지

-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복지정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빈곤율 증가와 소득분배 악화 최소화
  -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 추진 및 복지확대로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확산되는 역할 수행

[그림 2] 한국의 지니계수(2인 이상, 도시가구)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라. 최근 분배지표 개선의 의미

□ 최근의 분배지표의 개선의 1차적 원인은 성장률의 회복에 있음. 2008년의 경제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경기가 회복되면서 Trickle Down 효과가 부분적으로 시현된 것으로 판단됨<sup>1)</sup>

- 2차적 원인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저금리 현상으로 인하여 이른바 불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소득층의 소득증가 둔화

<표 3> 한국의 경제성장률, 이자율, 부동산 가격변동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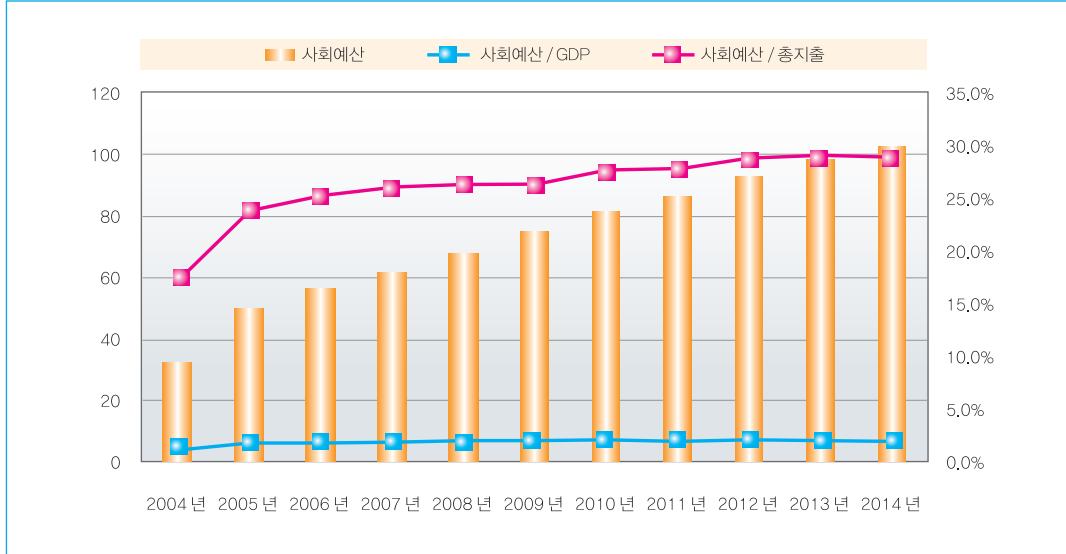
연도	경제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	이자율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부동산가격변동률 (주택매매가격동향)
2007	5,1	5,23	3,1
2008	2,3	5,27	3,1
2009	0,3	4,04	1,5
2010	6,2	3,72	1,9

1) 경제성장률이 1%p 증가하면 양극화 지수는 2.3~5.1% 감소함(삼성경제연구소,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2006)

□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등 사회복지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도 하위층의 소득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3]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

(단위: %)



## 2. OECD 국가의 소득 양극화

□ 지난 10년간 하위 5분위에 위치한 사람들의 소득 비율이 이탈리아와 멕시코가 약간 증가하고,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미국에서 약한 감소세

<표 4> 소득 5분위별 소득 비율의 증감(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포인트 변화)

구분	하위 5분위	중간 세 개 5분위	상위 5분위
급격한 증가	-	아일랜드, 멕시코, 터키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완만한 증가	이탈리아, 멕시코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미국
안정적	호주,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그리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호주, 벨기에, 체코, 프랑스, 헝가리, 일본,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완만한 감소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미국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미국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급격한 감소	-	노르웨이	아일랜드, 멕시코, 터키

주: 1) 소득비율의 "급격한" 증가와 감소는 2%p를 초과하거나 미만인 경우를 의미. "완만한" 증가와 감소는 0.5와 2p 사이를 의미. "안정적"이라 함은 ± 0.5%p 사이의 소득비율 변화를 의미.

2)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의 경우, 자료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경까지 기간 중 변화를 나타냄.

자료: OECD,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2008

〈표 5〉 OECD 주요국의 실질 가처분가구소득 연평균 변화(1980년대 중반~2000년대 후반)

국가	전체인구	소득 하위10%	소득 상위10%	국가	전체인구	소득 하위10%	소득 상위10%
호주	3.6	3.0	4.5	이탈리아	0.8	0.2	1.1
오스트리아	1.4	0.4	1.6	일본	0.3	-0.5	0.3
벨기에	1.0	1.7	1.5	룩셈부르크	2.3	1.8	2.8
캐나다	1.1	0.9	1.6	멕시코	1.4	0.8	1.7
칠레	1.5	2.5	1.0	네덜란드	1.4	0.5	1.6
체코	2.7	1.8	3.0	뉴질랜드	1.5	1.1	2.5
덴마크	1.0	0.7	1.5	노르웨이	2.3	1.4	2.7
핀란드	1.8	1.3	2.7	포르투갈	2.2	2.4	2.3
프랑스	1.2	1.6	1.3	스페인	3.7	6.0	3.0
독일	0.9	0.1	1.6	스웨덴	1.8	0.4	2.4
그리스	2.1	3.4	1.8	터키	0.5	0.8	0.1
헝가리	0.6	0.4	0.6	영국	1.9	0.9	2.1
아일랜드	4.7	4.5	3.7	미국	1.3	0.5	1.9
이스라엘	1.7	-1.1	2.4	OECD-29	1.7	1.4	2.0

자료: Growing Income Inequality in OECD Countries: What Drives it and How Can Policy Tackle it? Forum, Paris, 2 May 2011(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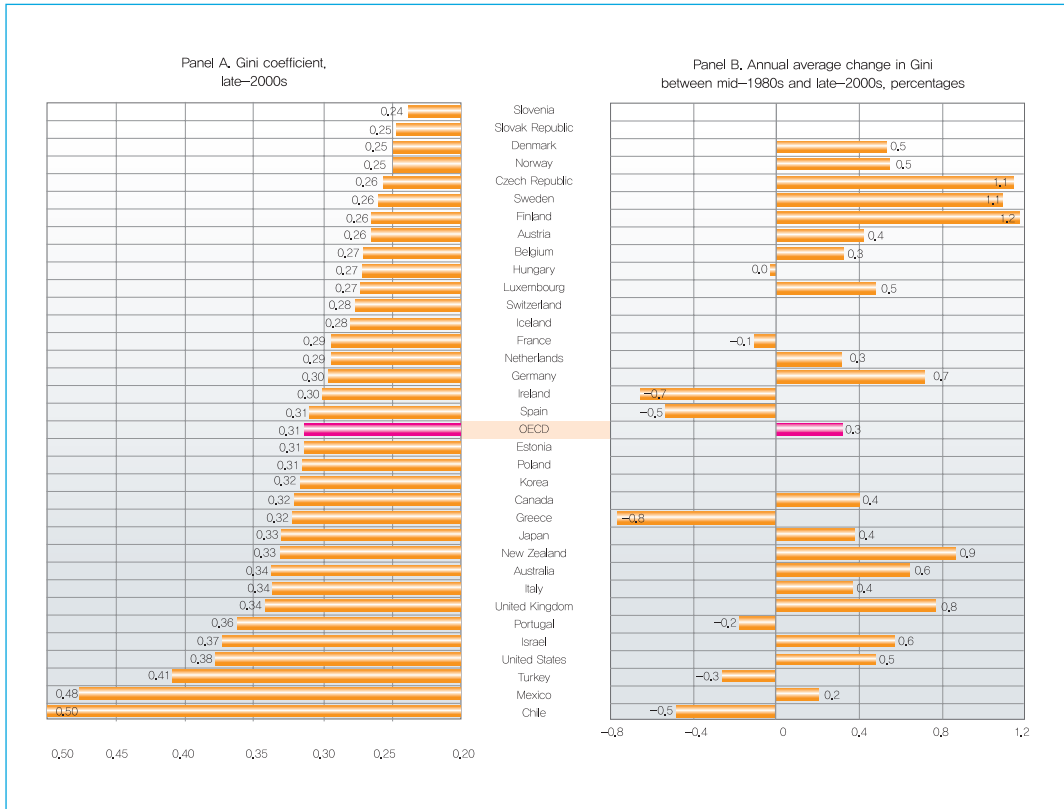
## 가. 지니계수

### □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00년대 후반 기준으로 북유럽과 서유럽의 지니계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전히 낮은 편임
- 반면, 칠레, 멕시코, 터키, 영어권 국가들과 일본의 지니계수는 OECD 평균(0.313)을 모두 상회하여 소득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남
  - 한국(0.315)은 중간수준에 속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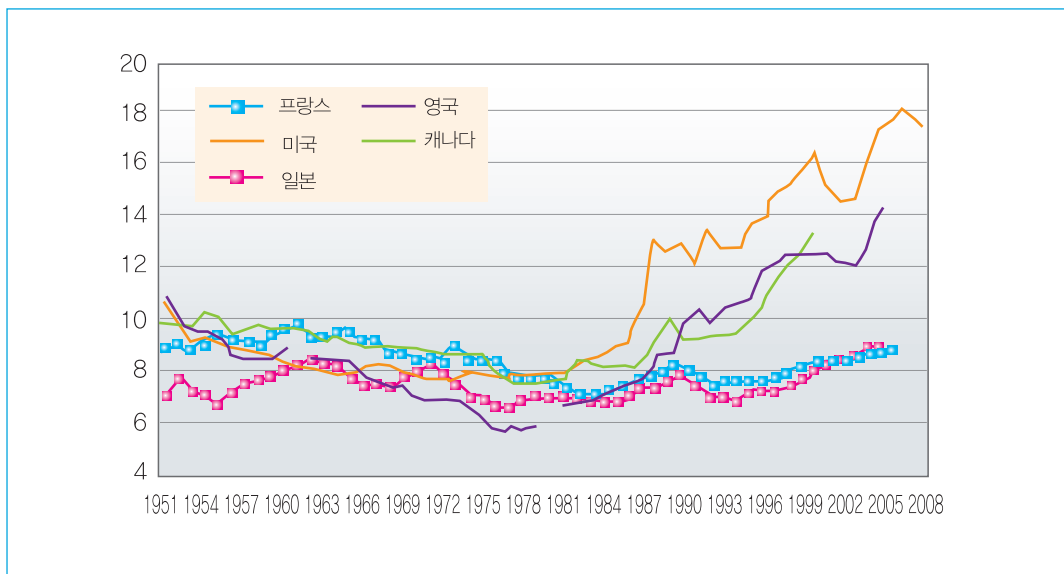
[그림 4] OECD 주요국의 지니계수(2000년대 후반)

(단위: %)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

[그림 5] 주요 선진국의 상위 1%의 소득 점유율 추이



자료: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

## 나. 빈곤율

- 2000년대 후반, 가구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소득계층 비중은 덴마크 6.1%, 프랑스와 네덜란드 7.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으며, 미국이 17.3%로 가장 높음
  - 전반적으로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군의 빈곤율이 낮고, 미국, 일본(15.7%), 한국(15.0%)에서는 높게 나타남
-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약 20년간의 연평균 빈곤율 변화는 스웨덴이 3.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덴마크(0.1%), 프랑스(-0.2%), 캐나다(-0.2%), 미국(-0.1%)을 제외하고는 지난 20년간 전반적으로 연평균 빈곤율 증가

[그림 6] OECD 주요국의 빈곤율

(단위: %)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

### 3. 정책적 시사점

- 1980~90년대 이후 많은 선진국에서 양극화가 확대되었으며,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된 후 둔화
  - 우리나라는 성장과 고용, 고용과 복지간 연계 고리가 단절되면서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음
    - 글로벌화, 기술변화, 고령화·저출산 등과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소득계층간, 기업간, 산업간,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성장의 분배효과(trickle down effects)가 사라지면서 양극화 심화
  - 한국사회에서 양극화가 문제되는 것은 양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해외 선진국에서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양극화의 여러 측면이 압축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198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을 비교하면 OECD 국가의 3/4에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어 과거 20년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 최상위 10% 소득계층과 최하위 10% 소득계층의 격차는 과거 20년간 7~8% 증가되었음
- OECD 사무총장인 Angel Gurría는 불평등 심화가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각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
  - “불평등 심화는 사회, 국가, 세계를 이분화시키며, 세대 간의 상향 이동을 억제하고, 유능하면서도 근면한 사람들이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임성은(복지서비스연구실 전문연구원)      문의(02-380-827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